



## #3 케냐, 부르심을 따라서

2021년 1월 28일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케냐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19가 새해가 되어서도 다시 대유행이 되면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을 초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게다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선배 선교사와 동료 선교사의 부친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과 몇몇 나라에서 동료 선교사와 자녀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미국 등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교회와 선교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힘을 잃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가 없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더 부흥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환란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는 얼마나 더 어렵겠냐'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격려의 문자를 주시고 또한 정성어린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도 날마다 더욱 힘써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케냐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부르심을 따라서 케냐에 도착한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한글 성경 1독을 마치고 1월 부터 영어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고 스와힐리어를 배우기 위하여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번째 선교편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케냐에서 날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호산나 미니스트리 사역(Hosanna Ministries for Africa)

2019년에 교단 선교사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케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케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케냐로 파송 받으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주된 임무는 은퇴하신 명예선교사님의 사역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임 선교사의 사역을 인수인계 받는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뿐입니다.



호산나 미니스트리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나룩이라는 지방에 마사 이부족 선교로 시작되어서 현재 25개 교회가 있습니다. 2개 교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8개 교회는 가건물에서 그리고 나머지 15개 교회는 건물이 없이 나무아래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현지교회들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며 교회사정을 살펴볼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호산나에 소속된 일부 목회자들과 첫만남을 통해 교제를 하며 정성껏 준비한 성탄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탄선물은 후원교회 중 한 교회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힘써서 나누기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탄선물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도 비록 적은 선물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나세리안교회 유치원 사역

경주중부교회 후원으로 건축된 나세리안 교회 내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작년 3월 이후로 문을 닫았다가 정부 방침으로 올 1월 5일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70명의 어린이들과 교사 2명이 예배당 뒷쪽에 2개 교실을 칸막이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반에 30명 이상씩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칸막이를 없애고 교실을 통합하여 한 반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다른 한 반은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면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실내교실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에서는 유치원 건물을 단독으로 건축해 줄 후원자가 생기면 땅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뒷편 땅 주인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유치원을 방문하면서 아이들 간식으로 과자와 주스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스를 나눠주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이들이 눈만 멀뚱거리면서 주스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주스팩 모서리를 입으로 뜯고 있었습니다. 주스를 살 때 위생을 생각해서 빨대가 붙어있는 것을 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빨대가 붙어 있는 주스를 한 번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빨대를 꽂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부러진 빨대를 조금 펴야 빨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빨아 먹기가 힘드니까 빨대를 빼고 구멍에 입을 대고 먹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구부러진 빨대를 펴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야 이러한 웃지못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지 목사가 '오늘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겨서 신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웃음보다는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때를 기억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밝은 미래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 하쿠나 마타타!

누구나 한번 쯤은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동아프리카, 특히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로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마'라는 뜻입니다. 케냐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입니다. 케냐에 와서 보니 필리핀보다 오히려 영어를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지인들의 삶속에 자연스럽게 깊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언어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이 시작되어서 아내와 함께 등록을 하고 스와힐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3개월 동안 현지인들이 스와힐리어로 말하면 본의 아니게 반 병어리, 반 귀머거리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입이 트이기 시작하니 재미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먼저하고 스와힐리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셔서 전혀 어려움없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와힐리어로 유창하게 사역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코로나 19 케냐 상황

- 누적 확진자 : 100,000 명
- 누적 완치자 : 83,625 명
- 누적 사망자 : 1,750 명
- 지난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 126 명

작년 11월에 1,500명대를 정점으로 12월에는 급감소를 보였고 올해 1월 현재는 평균 120명 대로 다소 안정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모든 학교도 등교하며 수업을 시작하였고 교회 모임 규제도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힘쓰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 각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 케냐의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든 분야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되도록
- 선교사 비자가 승인이 돼서 스탬프를 받기 위한 서류를 12월 초에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스탬프를 받는 과정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 언어공부를 통해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 2월 7일 주일, 마우라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저희 부부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과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 딸 마예리, 사위 고범수, 손녀 고은영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예찬이가 공군학사장교 1, 2차 시험에 합격하여 2월 12일 3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마형갑, 홍은혜 선교사 올림